



지역 소식



가족 가정 비축 특집 기사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래 전부터 비축을 권유해 왔다. 전 세계적인 자연 재해와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비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한국적인 방법으로 비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두 가정을 소개한다.

서 울 북 스테이크 장위 와드의 이영부 자매는 그 옛날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모범을 보고 비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 옛 어른들은 항상 식량을 비축해 놓았는데 그 방법이 요즘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분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채소와 과일들을 장아찌로 만들거나 절여 놓으셨어요. 된장과 간장, 고추장, 그리고 겨울마다 담그는 김장도 훌륭한 저장 식품이었죠. 그렇게 만든 것들을 광에 비축해 두고 일 년에 걸쳐 먹었는데 그 방법이야말로 교회에서 강조하는 비축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같은 선조들의 비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영부 자매는 비교적 일찍 비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자매 역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저장 공간이 협소하고, 캔으로 만든 음식의 종류가 미국에 비해서 적고, 쌀밥과 반찬을 먹어야 하는 한국인의 특성 등, 교회에서 권장하는 형태 그대로의

비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혼 초기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상호부조회에서는 계속 비축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비축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가 살림하시던 모습이 떠오른 거죠.”

이영부 자매는 제일 먼저 비축에 대한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미국처럼 저장고를 따로 만들고 날짜 별, 종류별로 저장해 놓을 형편이 되지 않는 이상 지극히 한국적인 방법으로 비축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여러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늘 장아찌, 오이 장아찌, 양파 장아찌, 흑마늘 등 채소를 이용한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식품과 물을 비축하고 약간의 돈을 저축함으로써 인생의 역경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장 식품들로 냉장고를 채웠고, 여름에는 복숭아를 조리고 겨울에는 홍시를 얼려 놓는 등 과일도 비축해 나갔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를 넉넉하게 담가 놓는 것은 기본이었다. 버섯, 무말랭이 등의 말린 채소와 땅콩과 아몬드 같은 견과류들도 비축했다. 쌀과 잡곡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사 두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도 충분히 준비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의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즉석식품도 많이 모아 두었다. 제일 중요한 식수는 생수 작은 병을 여러 박스 사서 유통 기한이 지나기 전에 마시고 다시 채워놓는 형태로 비축한다. 전기가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 랜턴과 초도 잔뜩 준비해 놓았다.

“저희 집에는 항상 일년 치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거창하게 비축 창고를 만들고 꼼꼼히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전 더 편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서 현명하게 보관하자.’ 그 생각만 가지고 비축 프로그램을 시행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희 집 사정에 맞는 이상적인 형태의 비축이 되었지만요. 비축을 잘 해 놓으면 부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할 게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안양 스테이크 금천2 와드의 황미옥 자매 가정의 방법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비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실패했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전투 식량이라는 걸 사 보기도 하고, 캔 종류를 잔뜩 사서 모아 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잘 안 먹는 음식을 무조건 오래 보관하니깐 짐만 되고 실질적인 비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로 비축을 시작해 보자 생각했죠.”

생각을 바꾸니 비축이 훨씬 쉬워졌다. 황미옥 자매는 유통 기한이 다 되어가던 캔 종류를 모조리 처분하고 그 자리에 각종 병조림 음식들을 채워 넣었다. 매해 네댓 가지의 김치를 종류별로 담가 일 년 반 정도의 비축 분을 만들었고, 이영부 자매와 마찬가지로 마늘, 깻잎, 매실, 양파 등의 장아찌도 많이 준비했다. 무말랭이와 토란대, 그리고 각종 버섯 등도 말려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냉동고에 넣어 두었다. 과일 잼도 황미옥 자매 가정의 중요한 비축 식량이다. 포도, 살구, 사과 등의 과일로 철마다 잼을 만들어 일 년 분의



이영부 자매의 비축품들. 이 자매는 집에 있는 저장 공간 안에 물과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각종 생필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 그 외 장아찌 류의 병조림 음식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다.



황미옥 자매의 비축품들. 황 자매는 따로 비축 창고를 만들지 않고 베란다와 냉장고를 이용해 비축하고 있다. 곡류와 병조림들, 그리고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각종 장류가 주류 비축 품목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량의 인스턴트 식품을 준비하고 있다.

식량을 준비한다.

“한번 손에 익으면 어려울 건 없어요.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장 류들은 오래 보관하기 참 쉬운 음식들이예요. 그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일 년,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비축할 수 있어요.”

황미옥 자매 가정만의 비축 음식은 바로 비법 양념장이다. 3년 전 남편과 함께 요리를 하다가 탄생했다는 이 양념장에는 고추장 된장 마늘 건과류 등이 들어가 있어 어떤 요리에도 어울린다. 만일의 사태가 닥쳐서 다른 음식들을 모두 못 먹게 된다 해도 밥이나 국수와 이 양념장만 있으면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황 자매의 설명이다.

황미옥 자매의 집에는 물부터 소금, 각종 곡류와 양념류, 그리고 랜턴, 화장지,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비축되어 있다.

황미옥 자매는 말한다.

“이것들을 모두 사용하게 될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뿌듯한 건 사실이에요.”

가장 평범한 형태로, 또한 가장 한국적인 형태로 비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두 자매가 전하는 비법은 다를 바가 없다. 비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말 것, 그리고 각자 가정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비축을 할 것 바로 두 가지이다. 황미옥 자매는 여기에 한 마디를 덧붙인다.

“비축을 하는 만큼 소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모으기만 하면 나중에는 큰 짐이 되더라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때 먹고 다시 채워 넣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물건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능을 살펴본 후에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비축에 관련된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 프로그램을 잘 실시하고 있는 회원이나 비축에 대한 노하우, 또는 비축과 관련된 간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화: 080-232-1441(내선: 564)

“우리는 여러분에게 식품과 물을 비축하고 돈을 저축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제일회장단,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청주 스테이크 제천 지부 평범한 듯 비범하게

19 48년에 발표되어 국민가요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서민적 감정을 잘 그려낸 그 곡의 무대가 된 제천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도는 조용하고 깨끗한 소도시이다. 박달재는 충북 제천과 다른 도시의 경계를 이어 주는 고개로 거기에는 잣나무, 전나무, 향나무 등의 상록수가 울창하게 자라 사시사철 푸른 기운을 내뿜는다.

제천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82년 6월이었다. 박달재에서 싱그러운 나무 향이 한껏 풍겨오던 초여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제천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발전을 거듭하던 제천 지부는 원주 지방부에서 청주 스테이크로 그 소속을 옮기면서 제천여고 옆 낡은 기와 건물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제천 지부는 현대도 그 자리에 있다. 다만 고풍스럽던 기와 건물은 표준 교회 건물로 바뀌었다. 2002년 2월 23일의 일이다. 당시에는 표준 건물로의 변화를 아쉬워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낡은 한옥 안에 침례탕까지 있었던 옛날 건물은 그 나름대로 정취와 멋이 있었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을 회원들은 안타까워했다. 깔끔한 표준 건물로 변해 버린 지금, 제천 지부는 외관상으로는 무척 평범한 듯 보인다. 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비범함을 엿보게 된다.

제천 지부의 모든 회원들은 교회로 들어오기 전 각자의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교회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다른 집회소처럼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무방하고 또 그것이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내화로 갈아 신는 것은 제천의 회원들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지부 사랑이다. 덕분에 완공 후 십 년이 흘렀지만 제천 지부 건물은 여전히 깨끗하다. 단순히 실내화를 신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부 회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쓸고 닦는다.

제천 지부의 회원 수만큼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사십 여 켤레의 신발을 보면 방문자들의 마음마저 정건해진다.

현재 제천 지부는 신성식 지부 회장 가족을 비롯하여 지부 회장단인 강병채 형제와 김건국 형제 가족 등 약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회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도 제천





지부 구석구석 활기가 넘치는 것은 박달재에 자리 잡은 상록수만큼이나 푸른 젊음을 내뿜는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회원들 때문이다. 성인 회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들은 제천 회원들의 활력소이자 희망, 그리고 미래이다.

제천 지부의 상당수 회원들은 제천시에 거주하지 않는다. 신성식 회장 가족은 단양에서, 김건국 형제 가족과 김영운 형제 가족은 강원도 영월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을 달려온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표준 건물이 있고, 매주 성찬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성식 지부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한 해 두 번 연차 대회가 끝나고 나면 각 연사별 말씀 내용을 직접 정리해서 복사한 후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 정리본은 연차 대회 특집호 리아호나가 나오기까지 제천 회원들에게 중요한 영적 자양분이 된다. 신 회장의 이 같은 배려와 사랑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 아내인 이지애 자매와의 사이에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제천의 모든 회원들 가족처럼 여기며 대한다. 실제로도 제천 지부 회원들은 대가족이나 다름없다. 안식일 모임이 끝난 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 더욱 그렇다.

회원들은 식탁을 펴고, 의자를 배열하고, 음식을 꺼내 나누는 등의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해 나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대가족의 잔칫날 같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나이와 부름,

혹은 성별에 상관 없이 회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비단 식사 때만이 아니라 제천 지부의 모든 일은 이처럼 자발적인 회원 참여로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성인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고, 또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그러한 청소년들의 모범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제천 지부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에는 네 쌍의 쌍둥이가 있다. 이들 여덟 명은 청주 스테이크 회원들 사이에서 제천이 ‘쌍둥이 지부’라고 불리게 된 이유이자, 제천의 고유한 분위기와 끈끈한 정,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 왜 계속 전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다. 제천 지부 회원들은 하나 같이 “저 쌍둥이들이 자라서 제천의 중심이 될 때, 이 제천에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부에서 세미나리 교사, 초등학교 회장, 성찬식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임정미 자매는 1988년에 침례 받은 후 제천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가장 오래된 회원이자, 가장 바쁜 회원이기도 하다. 임 자매는 그 옛날의 제천이나 지금의 제천이나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한다.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도 여전히 회원들의 뜨거운 간증과 서로를 위한 배려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고무적인 변화라는 임정미 자매는, “회원이 많이 늘어 제천 지부의 몸집이 커지는 것과 함께 회원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제천 지부는 현재 스테이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 옛날처럼 박달재를 넘어다니지는 않지만 100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스테이크 센터까지 차로 두 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스테이크 대회라도 있으면 제천 지부 회원들은 아침 일찍 준비해 긴 여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가족인데,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스테이크 센터와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은 제천 지부는 지금도 여전히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신앙을 행사하고 있다. ■

〈취재: 진민용 형제〉



복지의 ²⁰ 기본원리 ABC 단합 UNITY

단 합은 우리가 자립하고 가족과 교회 단위 조직으로서 더 큰 영적 힘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에서든, 세 명으로 구성된 회장단이나 서른 명으로 된 지부, 혹은 삼백 명으로 된 와드에서든,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위 사람들과 단합할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우리를 더욱 더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단합에 관해서도 그분의 패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전생애 걸쳐 가르치고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에서 하나이지 육체가 하나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웁니다.(요한복음 17:21 참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단합하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단합이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단합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하고 또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으로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공과반, 와드 및 지부를 설립하셨으며 우리에게 자주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주신 그러한 모임에는 커다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단합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9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6개월마다 모여서 서로 강화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신앙을 증진합니다. ……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고양되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시 모이게 되어”,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쪽)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고 기도와 봉사로 신앙과 마음을 보낼 때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문경에서 단합에 관한 여러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디안하이는

레이코니우스에게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쳐들어가서 니파이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이코니우스는 포고를 내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레이코니우스가 백성들을 단합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적을 대항하여 스스로 방비를 강화하고, 한 땅에서 한 무리가 되어 거하였고 ……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으며, ……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드렸더라.”(제3니파이 3:25)라고 나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니파이인들은 더욱 단합하고 영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결국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단합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 더욱 단합하기 위해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배웁니다. 물문의 물에서 엘마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름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뭉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모사이야서 18:21)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미움, 혐단, 외면, 조롱, 원한, 적의에 대한 치유책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십시오.”(“공홀히 여기는 자가 공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5쪽) 2,000년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두 선지자가 같은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단합하려면 계시를 추구하고 받으며, 겸손해지도록 노력하고, 서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참조) 이러한 원리를 전해 주신 아이어링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단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님은 세상이 기적으로 여길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완전히 단합될 때 성도들은 주님의 모든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같은 글에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의 왕국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삶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물문경을 살펴봅시다. “저들 중에 다름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게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제4니파이 1:2~3) ■



새벽반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며

나는 2009년에 매일반 세미나리 교사로 부름 받았다. 부름을 받고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다. 감독으로 봉사할 때도 세미나리 교사를 부를 때 가장 고심했는데, 막상 그 부름이 나에게 오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나는 부름을 받은 후 처음 청소년들과 만났던 때를 아직 기억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날 가르칠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했고 6시 20분부터 반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공과를 하거나 말씀을 할 기회가 무척 많았는데, 그날 그 새벽의 공과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첫 수업 이후 나는 4년이 흐른 지금까지 매일 5시에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고 반원들을 만나고 있다. 매일매일이 쉽지 않고 육체적인 힘겨움도 늘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발전해 가는 반원들을 보면 절로 힘이 솟는다. 항상 바쁘고 피곤해하는 반원들이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집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반원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받기도 했다. 하얀 옷을 입은 청소년들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나는 수업 중 간증을 하면서 자주 눈시울을 적신다. 영의 속삭임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해 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준다. 매일반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면서 더욱 큰 간증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반원들을 돌려써서 출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들의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서 해임되는 그날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반원들을 돌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추동수 형제, 호계 지부〉



교회의 표준에 이끌려서

방학을 맞이해서 대학교에 놀러 가 농구를 하던 중에 선교사님들을 만났다. 평소 스포츠를 좋아해서 정신없이 농구 시합을 즐기고는 하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장로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렸다. 장로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사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웠고 종교, 특히 기독교 자체에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선량한 모습과 친절한 태도는 내 마음을 끌었고 무엇보다 교회가 가진 높은 표준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장로님들과도 계속 토론을 이어 나갔다. 나는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염려와 걱정, 혹은 반대가 이어졌지만 나는 꺾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물론 침례를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나는 왜 침수로써의 침례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고 침례를 받기에 내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중에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되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되려고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었고, 그 후 나는 마음을 돌려 지난 4월에 침례를 받았다. 현재 나는 고3이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참석한다. 성찬 축복도 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꿔 준 교회에 감사한다. 교회는 내 삶의 기쁨이다. 이 교회는 참되다. ■

〈박찬기 형제, 대신 지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태백 지부 회장: 김진우 장로(전임: 박성규 장로)

광주 스테이크

광주 스테이크 회장: 오석중(전임: 조용현)
 광주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최남용(전임: 이병환)
 광주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 김용진(전임: 오석중)

부산 스테이크

대신 지부 회장: 최종호(전임: 김병규)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감독: 선영필(전임: 박지훈)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감독: 박진우(전임: 이수환)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감독: 전영철(전임: 안상헌)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감독: 황창주(전임: 최기동)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감독: 이권태(전임: 박정록)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회장: 강영호(전임: 홍창민)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회장: 김승환(전임: 윤종순)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6명/해외 1명



김신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부산 선교부



정영현 장로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서울 선교부



배성혜 장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선교부



조영진 장로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



오성택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선교부



**김홍집 장로,
류병출 자매**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한국 서울 성전



윤은지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부산 선교부

사랑하는 예수님께

12 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 실릴 초등회 어린이들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라는 주제로 시, 편지, 그림 등의 작품을 한국 관리 본부 출판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해당 초등회 어린이의 소속 와드와 이름을 꼭 밝혀 주십시오.

이번 작품 공모는 초등회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예술적인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초등회 어린이들의

힘만으로 완성된 작품들은 분명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 소개된 작품들 중 일부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2013년 달력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심사 기준, 저작권 등 달력과 관련된 내용은 9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과 한국 교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회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요강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품: 〈사랑하는 예수님께〉라는 주제로 완성된 시, 편지, 그림(인당 한 편만 응모 가능)
- 대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초등회 어린이
- 마감: 2012년 9월 28일
-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번지 3층,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 앞
-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 문의: 080-232-1441(내선: 564)